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9월 정기국회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목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탐루의 정신 그대로 탐평화를(II) · 김낙중 선생님 안전결 · 7 / 양심수가 보내온 편지 김훈데 · 정창운 · 박준익 · 강성철 · 12 / 양심수를 만나다 임미영 · 15 / 회원마당 · 8월 산행기 나순석 · 18 / 회원마당 · 몸서리감시통 기행기 강남옥 · 20 / 알립니다 · 양심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에 초대합니다 · 23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현황 · 24 / 알립니다 · 정기수 선생님 근황 · 26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7 / 재정보고 · 39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40

6·15 공동선언과 6자회담 정신을 깨고 있는 북침전쟁 연습

- 한·미 합동군사훈련중단, 평화협정체결, 주한 미군 철거를 거듭 주장한다 -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른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의 2단계인 대북반격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 8월 27일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세종로 이 충무공 동상 앞에서 '대북전쟁훈련, 한미군사훈련중단' 이라고 쓴 펼침막을 들고,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강제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급한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연행되어 간 종로경찰서를 찾았다. 대학생 세 명이 지능 1팀에서 집시법 등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6·15 공동선언과 2·13합의 등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이는 북침전쟁연습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려 한 일은 양심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기에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필자도 학생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뜻을 평화적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헌법이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 일로, 집시법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해는 가지만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행동과 주장은 정당했다.

지난 7월 27일 한·미연합사가 8.20~31일까지 을지포커스렌즈(07UFL)연습실시를 발표하면서 많은 시민, 사회단체와 정치인들까지 한미합동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8·15 광복절 62돌을 맞은 8·15 민족통일 대축전기간동안에는 한국진보연대(준)를 비롯하여 각 부문단체들이 입을 모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의 중단을 촉구했으며 2차 남북정상회담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화를 깨는 주범으로 미국의 대

북적대정책 중단과 함께 모든 형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 특히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범민련 남측 본부' 등 일부 단체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의 지휘소가 되고 있는 '탱고' (TANGO)기지 앞에서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지위 촛불문화제, 평화군축집회 등을 통해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전쟁연습 즉각 중단을 요구했었다.

다 알려졌듯이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실시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 사태이후 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을지연습'을 한·미가 합의를 거쳐 1976년부터 통합하여 실시해 왔었다. 1980년부터는 컴퓨터와 '위게임' 모델에 의한 도상지휘소 연습을 실시하여 연합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수행절차 숙달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하는데 주력했다. 이같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미국이 외국군과 벌이는 합참작전 프로그램 중 최대의 합동군사 훈련이자 최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이면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 기동훈련을 함께 하고 있다. 예로써 2005년에 대구지역에서 전개된 기동훈련의 경우 가상적군으로 인민군 군복을 입혀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대북 적대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고, 미 육군의 우주부대가 참가하여 이북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체계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엔 주한미군 5000명, 미 본토와 '괌' 주둔 미군 수천 명이 참가하여 합참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2007년의 〈을지포커스렌즈(07-UFL)〉 연습도 예외 없이 위기조치, 전시전환 및 이에 따른 한국군 동원과 미 증원군의 전개 등 작전 계획 5027-04의 시행절차를

익히는 세계 최대의 모의 전쟁 연습으로 사실상 북침 전쟁 연습이다. 한미연합사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가 아닌 컴퓨터로 전쟁 상황을 모의(simulation)하면서 실시하는 지휘소(cpx)훈련이라고 하지만 주한미군 5000명과 해외주둔 5000명 등 1만 명이 전개하는 훈련인데다. 총무계획과 작전계획 5027, 5029와 밀접히 연관되어 이북의 급변 사태, 즉 내부요인에 의한 자체붕괴, 전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정권 붕괴 대비대책을 세우며 특히 5027-04 작전계획은 이북정권 붕괴 인민군격멸을 통한 통일 여건 조성(무력통일)을 명시하고 있어 그 침략성과 대북공격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군사용 인공위성과 세계적 차원의 군사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지휘통제소 훈련을 실시하고 핵심, 컴퓨터 전문가 500여명이 해외에서 입국 상주하여 미국의 (대북)군사전략을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및 행정기관과 주요 산업체까지 포함하여 진행되는 만큼 <울지포커스렌즈> 연습은 가장 포괄적이고 대규모적인 대북군사훈련임에 틀림없다.

불필요한 가정이지만 만약 이북이 중국이나 러시아 군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까지 포함한 연합군으로 이남을 대상으로 한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남침전쟁연습과 '무력통일'을 위한 대남공격 연습을 전개한다면, 과연 남측의 안보상황과 대북인식은 어떠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울지포커스렌즈> 실시와 관련 이북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28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침략적인 울지포커스렌즈(UFL) 합동군사연습이 남

조선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무대로 하여 실전분위기 속에서 발광적으로 감행되고 있다'며 군사소식통을 인용 남쪽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소상한 훈련상황을 보도하였다. 바로 '남조선 미군 연합사령부는 미국 본토로부터 증강된 미제침략군 수송구본대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의 일부지원부대들을 보급창으로부터 전쟁장비들을 작전지역으로 긴급수송하는 연습과 남조선군 3야전군산하 여러 군단부대들의 작전계획 시행, 특공대 침투작전, 화학전 연습에 광분하고 있다'고 전하고 '또한 <울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의 체계 안에서 감행되는 해상전 연습을 위하여 24일, 미제7함대의 기함인 '블루릿지' 호가 평택항에 기어들이었으며 초대형 항공모함 '키티호크' 호 타격집단이 일본남단에서 이 전쟁연습에 투입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한 '21일과 23일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이 해군 1,2,3 함대와 5성분전단의 전투함선들을 동원하여 조선 동·서해의 속초, 강릉, 포항, 울산, 백령도, 덕적도, 격렬비열도 주변해상에서 유도탄 발사연습과 해상사격을 배합한 실동연습에 열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해외기지에서 날아든 비행대들과 남조선 강점 7항공군 비행대들, 남조선공군 3개의 전투비행단, 1대의 혼성비행단 소속 800여대의 전투폭격기, 추격습격기, 습격기, 관측기, 무장직승기들이 23일과 27일 남조선 지역 상공을 작전무대로 공중전, 지상대상물타격 근접항공지원 공수작전연습에 미쳐 날뛰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특히 '도발적인 <울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 하여 각종 전략 및 전술 정찰기 10여대가 매일 같이 전연일대 상공에 날아들어 동·서를 왕복비행하면서 공화국(이

북)의 전반지역에 대한 공중정탐 행위를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자 노동신문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반평화적인 전쟁연습'이라며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연습소동을 벌이면서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6자회담에서 그 어떤 열매를 따내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미국이 지금과 같이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쟁연습을 벌이면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엄중히 나선다면 6자회담 그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북 언론 보도의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의 실제상황은 일반인에게는 확인 될 수 없지만 이러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관련 탱고(TANGO-Theater Air Navy Ground Operation)기지가 있었음이 2005년 12.23일자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고 화강암 속에 생물, 화학무기에도 버틸 수 있는 지하요새라고 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박2일 짧은 방한기간 중 첫 일정으로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통제소 병커인 '탱고' 기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헬기로 이동 한미연합 전시증원(RS01)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 지휘소는 1970년부터 조성되었다고 하지만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이곳 푯말에 따르면 1954년 8월 20일에 미군에게 공여되었다고 한다.

'탱고'는 전쟁 발발시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곳으로 최첨단 군사시설과 방어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1만평 규모이상의 지하병커에는 두 가지 핵심 시

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전쟁룸(war room)으로 이곳에 설치된 대형화면에는 적군의 규모 및 공격방향 속도 등 적군에 대한 정보와 아군의 병력대응태세 등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전쟁을 지휘하는 작전회의실이며 다른 하나는 '스킵' (SCIP)라는 최첨단정보시설로 한반도 수백 km 상공에 떠있는 첩보위성과 20 km 고공을 비행하는 U-2 정찰기가 찍은 사진들이 곧바로 대형화면에 나타나고 미국 본토의 중앙정보부(CIA)와 국방부 정보국(DIA)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스킵'에는 한국군 고위관계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 탱고 이외에도 용산 기지에 'CC 서울'과 한반도 남부지역에 '오스카'라는 지하병커를 갖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반전평화통일운동 단체들이 이 '탱고' 기지 앞에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시작된 8월 20일부터 끝나는 31일까지 기자회견, 1인 시위 농성, 촛불문화제, 평화군축집회 등을 이어왔다. 필자 또한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했었다. 성남시 소재 청계산 중턱에 있는 이 기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돌게이트 없이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다. 평통사 활동가들이 기지 정문 앞 곳곳에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펼침막, 피켓 등을 설치하였다. 필자는 '전쟁훈련 UFL 연습 중단하라' 'STOP! WAR EXERCISES!'라고 쓴 큰 피켓을 들고 정문 바로 앞에서 있었다. 많은 군용차량과 버스, 승용차들이 줄이어 들어가고 나가며 검문을 받고 있었다. 한국군도 있었지만 외국군(미군)이 더 많아 보였다. 사복 입은 외국 인도 많았다. 그들이 통과하고 있을 때마다 피켓을 올려 전쟁연습 중단을 말없이 표현했다. 이 '탱고' 기지 바로 옆에는 미8군 사격장인 '레이놀즈'가 있어 주민

“탐루(探路)의 정신 그대로 탐평화(探平和)를!”

—평화평화운동가 김남중 선생의 ‘정상회담’에 대한 고언—

한인정 | 191호 2014

들이 일상적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손으로는 악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총구를 드러내는 현장 모습이다.

이제 (07UFL) 연습은 오늘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침전쟁 연습은 끝나지 않고 있다. 〈을지포커스렌즈〉 말고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한미연합전시증원, 독수리(RS01-FE) 연습 또한 작전계획 5027-04에 의한 북침전쟁연습이다. RS01-연습은 대표적인 핵선제공격연습이었던 ‘팀스피리트’ 연습이 폐지된 1994년부터 시작되어 1995년부터는 한국군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1961년부터 시작. 원래 사단급이었으나 1997년부터는 군단급으로 확장)과 합쳐 한미연합전시증원-독수리 연습으로 이어오고 있다. RS01-FE 연습 역시 한미연합사는 방어훈련이라고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도 말했듯이 작전계획 5027-3단계 2부에 따른 ‘평양고립을 노린 북서해안 상륙훈련’임을 2006년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합동상륙훈련에서 드러냈었다. 당시 주한미군 17,000명과 미본토 ‘팜’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에서 3000여 병력과 대량살상무기가 투입되었고 동해엔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람 링컨’ 호가 80기가 넘는 최신예 전폭기 등과 구축함, 순양함 등을 이끌고 왔었다.

이같은 북정권을 군사적으로 고립압살 붕괴시키려는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은 당장 끝장내야 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 때문만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과 6자회담 정신에 정면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 사이엔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했고 6·15 공동선언에서는 이 3대원칙을 재천명하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화해와 단합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동족을 상대로 한 그것도 정권붕괴목표까지 포함된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을 한다는 것은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 그리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방기하는 반역사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핵선제공격등 군사위협 행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오는 9월8일은 미군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지 62년이 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4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미군은 이 땅을 장점하며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전협정 60조에는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 하기로 했었다. 이북에 남아있던 중국 인민지원군은 1958년 10월 26일까지 완전철수했지만 이남의 미군은 오히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들여오는 등 떠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북전쟁연습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미 사이에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3년 6월 11일의 ‘조·미공동성명’, 1994년 10월 21일의 ‘제네바 협정’ 등이 있었고, 상호불신해소 상호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경제교류협력, 핵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는 등 전쟁위협 해소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특히 2000년 10월 12일엔 ‘조·미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내용 등 관계 개선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부시정권에 의해 휴지화되고 말았으며 오히려 미국은 이북을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며 핵선제공격

공갈까지 했다. 오늘 이른바 '북핵문제'란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핵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핵개발이었다. 그래서 핵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북·미 사이이며 이를 보장하는 다자 협력체로서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이 여전히 이 땅에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6자회담 성사를 원치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9·19 공동성명에서는 이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 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은 Corea 반도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무기로 이북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북과 미국은 상호주권 존중, 평화적 공존,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약속했었다. 또한 2·13 합의에서도 이북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재개하여 미국은 이북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

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었다. 또한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9월 1~2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북미관계정상화실무그룹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려 한다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5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사실상 전쟁 상태의 일시 휴전일 뿐인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며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⁴



알립니다

10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 일시 : 10월 9일 (화) 오후 6시 ■ 장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 작품명 : 무제2-1부(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69년 제작, 125분 상영)

■ 줄거리 : 일제강점기 시대,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남편과 마을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항일독립혁명군의 지도자로 반일선봉대로 서게 되는 삶을 다룬 이야기이다.

■ 문 의 : 한찬욱(016-235-5631)

■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탐루(探淚)의 정신 그대로 탐평화(探平和)를!”

- 평생 평화운동가 김낙중 선생의 '정상회담'에 대한 고언 //

안진걸 | 희망제작소

<190호에 이어 김낙중 선생님과 인터뷰를 실습니다.>

- 그렇다면, 적대적 군비경쟁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53년 체결된 정전협정 2조 13항에 보면 한반도 교전당사자들은 한반도에 외부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이전에 보유했던 무기의 교체만 된다. 그것도 중립국감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도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6년에 유엔군사령관이 그 조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폐기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북 간에 치열한 무기경쟁이 시작됐어요. 그 결과가 결국 이북의 핵무기입니다. 사실 남쪽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단은 50여년간 지속한 적대적 군비경쟁을 종식하겠다는 선언, 남북 공동의 군사통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북의 무기도입, 무기생산, 전쟁훈련 등을 서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게 합의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서로 감시·견제·소통하는 것이죠. 양측의 군사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전협정 체제하에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군비경쟁 해소에 대한 선언과 합의,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질적 기구 구성과 조치를 이번 회담에서 합의서보다 진일보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해요.”

- 남북기본합의서가 6·15선언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두 문서 공히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6·15공동선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 6·15공동선언

에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남북문제 해결의 본질이 교류협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전·대결·적대적 군비경쟁 해소에 있다고 봤을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합의서에 대폭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합의서 채택 당시에 야당이었던 평민당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DJ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는 합의서 비준동의를 추진 안 해요. 교류를 하다 보면, ‘이 북이 저절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교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평화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타도와 흡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일종의 “기능적 접근이론”인데, 군사적 방법만 취하지 않았지 타도와 흡수에 대한 내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남측이 주도하는 군사 경쟁과 남측 당국이 합의서에 비준동의를 추구하지 않는 데서도 그런 문제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6·15공동선언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남북문제의 핵심은 교류협력만으로는 못 푼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대적 군비경쟁 해소와 군사적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합의서에 주목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하자는 것이죠.”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평화 협정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전선언의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 평화보장조치로서의 평화협정이 있어요. 현재 미국의 부시는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종전선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북으로서도 안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화보장조치가 포함된 평화협정이어야 해요. 그런 내용을 담아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의 일정을 확정해나가면 좋겠네요.”

-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한국전쟁의 실질적 당사자들이 주요 당사자라고 생각해요. 50~53년의 전쟁 행위의 주요 당사국은, 누가 뭐래도 중·미·남·북 4자예요. 전쟁의 주요 당사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 4자들이 모여서 평화보장 조치를 논의해야 해요. 다만 종전선언은 4자가 확실히 하고, 평화보장조치는 현재의 6자 회담의 틀처럼 당사자와 주변의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이 모두 모여 6자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운동세력 일부는 줄기차게 북·미 평화협정을 주창해 왔는데요.

“북은 북·미가 하자고 했고, 남은 남·북이 하자고 했는데, 이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전쟁 당사자가 다 모여야 하죠. 분명히 남·북·중·미 4자가 전쟁을 한 게 맞잖아요. 북은 군사문제와 관련해 전시작전권을 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니,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이 규정돼 있지만, 미군군 사령관이 공격하러하면 남측도 공격해야 하니까 미국과 협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 북·미 불가침 및 평화협정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죠. 남은 남대로 남·북 평화협정을 주창했는데,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을 빼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런 문제를 다 고려했을 때는 전쟁 당사자였던 국가들이 당연히 종전을 선언하는 평화협정을 하는 게 맞죠.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얼마나 주체성을 발휘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열차 개통 문제도 있고, 특히 서해 NLL문제는 정전협정상의 휴전선이 아니에요. 당시 정전협정에서는 바

다에는 휴전선을 긋지 않았는데,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정한 것이 현재 마치 남북 간의 합의 영토선처럼 인식돼 있어요. 그러나 그곳이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의 영해에 속하는 문제가 있어요. 베를린이 동독의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때 서독 사람들에게 통로만 보장해줬어요. 이북도 통로만 보장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NLL 문제 논의를 다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측에서 NLL을 휴전선처럼 인식하게 만든 언론과 수구세력이 있어서 마치 이북이 휴전선을 넘어왔고, 또 넘보는데도 대응 안한다고 난리를 피워요. 그런데, 해상경계선 문제는 서로 협의한다고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2장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전향적인 논의가 함께 있어야 할 거예요.”

- 꼭 논의가 돼야 할 내용이 더 있다면요?

“개성공단 투자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북의 어디든지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북의 제품을 이남처럼 똑같이 수출할 수 있어야 해요.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평화협정 속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해서, 그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걸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등 인도적 조치도 필요한 게 아닐까요?

“6·15선언 후 그래도 진행된 것은 인적교류였어요. 상봉, 교류, 대회 참가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쪽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는 인적교류하자고 하면서도 군비증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남쪽의 잘 사는 모습을 북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이북은 남측에 맞서 군비경쟁으로 더 힘들어지고만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역시 이 문제도 쌍방 간에 대결이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술책이다'라는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해요.



온 것인데, 이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탕에서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평화체제라도 공고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측 내부에서, 남북 간에 경제·사회통합을 해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 시간이 많

을 완전히 해소해야 해요. 그래야 인적교류도 활성화 되죠. 안 그러면, 어려운 북한 사람들을 끄시기 위한 흡수통일 정책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고, 면회소 건설 등도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6·15공동선언에서 말한 것처럼 인적·물적 교류는 진전됐어요. 그러나 그 선언에서 못한 것이 바로 평화정착과 적대관계 종식이잖아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얘기가, '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북에서는 획기적인 군사적 신뢰조치 없이 교류협력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2차 정상회담도 있는데, 통일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통일해야겠지만, 통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통합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상생공존체제로도 가능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살림살이를 같이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마저도 국민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 간은 더 할 거예요. 엄청난 양극화와 세계화가 새로운 신분계급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민국가가 신분계급제를 깨고 나

이 걸릴 지도 모릅니다. 또 어서 남북 간의 거래가 민족내부의 거래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독일도 통일 전에 동서독의 거래를 내부 거래로 인정받았어요. 동서독간의 합의한 내용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준 것이죠. 그런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서서히 경제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의 삶은 분단체제의 고통과 완전히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4년부터 국가보안법과 싸우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55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든 타도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섬멸하기 위해 정말 무수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나 둘 다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서도 안 돼요. 결국은 공존의 길을 무조건 찾아야 해요. 남과 북이 서로를 부정·타도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 양쪽으로부터 모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제 삶이 그래 왔었죠. 최초에 이승만 정권한테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어서 청원서를 냈었죠. 그래서 55년에 처음 구속됐고요. 56년엔 제 스스로 같은 평화통일방안을 가지고 임진강을 건너 월북했다 다시 남으로 돌아와서 1년을 감

옥에서 살았어요. 63년도엔 고려대 학생들의 조직사건 관련으로 3년 반을 살았고요. 73년도엔 고대 민우지 사건으로 7년 수감됐고요. 마지막으로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6년을 살았어요. 감옥생활만 18여년을 한 것이죠. 56년 임진강으로 월북했을 때 평양에서도 3달간 감옥에 있었어요. 남과 북 감옥 모두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웃음)."

- 남·과 북 모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경계인' 같으세요.

"남과 북이 절대로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한 것뿐인데, 그게 못마땅하다고 양쪽으로부터 모두 미움을 받은 적도 있었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면, 이남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이북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피차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예요.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로 인정·존중한다고 했어요. 양국 헌법, 노동당약·국가보안법 등과 불일치해요. 이런 것들에 저는 맞서 싸워온 것이죠. 이제는 양쪽 다 규정을 바꾸어야 해요. 정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해석이라도 달리해야 해요. 이북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한다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남은 한반도를 38도선 이하로 해석한다고 말하면 되고요. 그런데 남북 양 당국이나 보수세력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 합의서 이행으로 초점을 맞추면 되고요. 합의서가 비준 동의되고, 이행만 하면 관련 헌법·법규 규정이 고쳐지거나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서로를 인정·존중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주장해도 미움 받을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 전쟁 중에 '탐루' 등을 들고 다니신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전쟁 중에 부산에서 탐루를 들고 다녔죠. 동족상

잔의 현실을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상 이 된 조건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죠.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그런 행동을 하게 했지요. 제가 한국전쟁 때 20세였어요. 그런데 계속 이북 의용군도, 이남 국군도 거부했지요. 그러다 52년 서울대 문리대를 갔더니 '북진통일' 결의대회를 시켜요. 자기는 전쟁도 안 나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탐루'라고 쓴 등을 들고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나?' 하면서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휴전하고 평화통일 하자고 했지요.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전쟁 계속 하고, 사람 죽어나가는 게 미친 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목사, 스님, 신부 같은 분들도 아무도 반대를 안 하니까 저라도 한 것이죠."

- 집회에도 가끔 참석하시던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제가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수감됐다 98년 8월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는데, 지금도 사면복권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형집행정지 중인데다가 보안관찰법의 보안관찰 대상이기도 해서 계속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고, 또 보고를 해야 해서 제가 활동하는 것을 다 말하기도 어렵네요. 말씀 하신 것처럼 가끔 중요한 집회도 가고, 토론회도 참여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협의회' 고문 같은 것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또 출소한 98년부터 명동 향린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 어떻게 명동 향린교회는 나가게 되셨어요?

"원래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지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종교와 구도의 과정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늘 구도의 자세, 평화와 박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교회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두 번이나 사형을

구형한 박정희씨는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아 죽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2차 인혁당 때도 중앙정보부에서 저를 연루시키려했는데, 마침 제가 고대 민우지 사건으로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연루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분들은 죽고 또 저는 살아남았어요. 인명은 재천이구나... 하는 것도 실감했구요. 지금도 저는 삶의 길을 찾고 있어요. 민족과 사람 간에 적대와 전쟁, 살육이 없는 삶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감옥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도 ‘빨갱이’라며 모두 외면했는데, 명동 향린교회의 홍근수 목사님께서 나서서 제 석방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을 맡아주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 출소하자마자 아내랑 함께 명동 향린교회로 나오게 됐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당시 석방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된 고영구 변호사도 함께 했는데, 이 분이 국정원장 될 때 ‘김낙중 빨갱이 변호인이고, 석방대책위원이었다’고 엄청 보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결국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 명단에서 전 늘 빠지게 됐지요. 저를 사면 명단에 넣기가 부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 98년에 8.15 특사로 출소했는데 지금까지 사면·복권이 안 돼 투표권도 없고, 보안관찰도 받고 있고, 해외출국도 안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요.”

- 닻은 어디세요? 자제 분들은 어떠신지요?

“일산에서 아내랑 둘이 살고 있어요. 1남 2녀를 뒀고요. 맏이로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딸 둘이 있죠. ‘탐루’를 쓴 김선주가 제 장녀이지요. 현재는 고양신문사 기자로 있고요. 아들은 고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고요. 막내딸은 주부고요. 저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빨갱이 자식이라는 고충뿐만 아니라, 공부하다가 장학금도 끊어지는 등 아픔을 많이 겪었죠.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 선생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무어라 불리는 게 좋으세요.

“글쎄요. 굳이 불린다면 ‘평화운동가’라고 불리고 싶네요. 구도자라는 말도 좋지만... 남북 간에 전쟁을 막고 서로를 인정·존중하자고 평생을 호소해왔으니 ‘평화운동가’라고 불리면 좋겠네요.”

-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 어디 가서 초청 강연을 하는데, 강연 제목이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예요. 강의 제목부터가 매우 서글픈 현실입니다. 물론 통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평화는 사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테러라는 것이 힘 있는 나라가 세력이 자기 맘대로 전쟁하고, 때려 부셔버리고, 약탈 하니까 정면으로 싸울 수 없는 약자가 밤중에 몰래 뒤통수 까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문명사가 현 인류에게 묻는 게 뭐냐면 ‘힘 있는 놈이 맘대로 나쁜 짓 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힘 없는 사람들과까지 공존할 것인가?’예요. 즉, 힘없는 사람들과까지도 공존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명사적 요구요, 과제인 것이죠. 이것이 통일과도 관련된 문제예요. 남남 간에도 그렇고, 남북 간에도 그래요. 사회경제적 약자와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과 철학이 없다면 통일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넘쳐나서 남남 간에, 남북 간에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제 남은 생도 계속 해서 그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각 장에 따른 부속합의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화네트워크’ 자료실에 부속합의서 3개가 나란히 수록돼 있습니다.

http://www.peacekorea.org/main/board/view.php?id=argnorg&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ange=headnum&desc=desc&no=10



변의성님의 편지

임미영 사무처장님께

많이 기다렸던 책이었기에 받는 즐거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사람을 잠을 듯 기세등등합니다. 권오현선생님, 장기수 어르신들, 후원회원 동지들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무처장님 가정에도 늘 희망이 생성되는 뜨거운 울타리가 굳건하시길 빌어 봅니다. 원주교도소에 있는 저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잘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정권의 마지막 남았었던 소명,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게 되어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내와 배려가 남아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흐름에 속도를 붙이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요즘 수구냉전 반동세력들은 속이 아파 팔짝팔짝 뛰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됩니다. 최근 '일심회사건' 재판정 모습만 보더라도 수구 보수의 몸부림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일심회 조작 간첩사건이 체제의 비애에서 오는 현실의 한계에서는 열성적인 변호사님들의 땀과 노력 속에 항소심 재판 결과가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두 번 기쁩니다.

이번 정상회담 뒷면에는 미국이 북한에게 힘과 전략에서 밀려서 꼬리를 내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미국과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남한 혁명운동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조건이 조성될 계기부여가 될 겁니다. 노동계급과 인민의 환호성이 들려오는 일시적 환청을 접하는 지금,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 걸음 걷듯이 차분하게 전진했으면 합니다.

후원회 소식지를 통해서 간간이 전해오는 장기수선생님의 병환 소식과 안타까운 망중한을 접할 때면 숙연한 마음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부끄러움 금할 길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저를 꾸짖으며 공산주의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 풍모는 이렇다고 가르침을 주셨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 혁명적 낙관주의에 차 있어야 한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완전히 고립되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생각하고 혁명의 미래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게 우리가 가져야 할 혁명적 낙관주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주에서의 고난에 찬 항일무장투쟁에서 제국주의의 포위를 뚫고 전진할 수 있었던 힘도, 체 게바라의 게릴라 투쟁의 힘도 혁명적 낙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혁명적 낙관주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혁명 승리와 민중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역사와 민중은, 때로는 패배하고 후퇴하는 듯 보여도 역동적으로 뒤집고 역사를 밀고 있다. 혁명적 낙관주의를 지닌 사

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사람을 믿고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을 중요시하고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부정을 극복해 간다. 혁명적 낙관주의는 공산주의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 넘치는 애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혁명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조국과 민중에 대한 사랑, 가슴에서 솟아나는 애정이 혁명의 출발이자 밑천이다. 공산주의자는 조국의 역사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열렬한 애국자이다. 민중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져야 한다. 민중의 삶 구체적인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대해 애정을 가져야 한다. 혁명을 하는 이유는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이 자주적이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조국과 민중에 대한 사랑이 한쪽 면을 이룬다면 다른 한 쪽 면은 동지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조국과 민중에 대한 사랑과 가족과 동지에 대한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나의 신체와 목숨만큼 가족을 사랑하라. 자기를 자기 사고의 중심에 두고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작은 차이를 가지고 동지들과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과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할 줄 알아야 한다. 피를 나눈 형제들만큼 동지를 사랑한다면 작은 차이 때문에 동지들과 분열하고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 나로부터 혁신하고 이신작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나에게서부터 원인을 찾고 나로부터 변화하여 주위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는 것,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그 모범이 확산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공산주의자가 가져야 할 기본태도이다. 남에게서부터 원인을 찾으려 하면 반목과 분열을 불러온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주위가 변하지 않는다. 모범적 사례가 생기고 그것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에 대중의 역동성이 있다. 내가 먼저 대중 속에 들어가서 모범을 창출하는 것을 '이신작척'의 혁명적 사업방법이라고 한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모범을 만들면 주위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믿고 따르게 된다. 그것이 공산주의자의 사업방법이고 조직방식이다.

— 통 크고 대답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통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내부의 작은 차이, 작은 눈앞의 이익, 꼬질꼬질한 자존심 같은 것들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미래를 생각하고, 더 큰 이익, 더 큰 승리, 더 큰 위엄성을 생각하며 통 크게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주위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그리고 대답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은 잘 타산해야 하겠지만 자질구레한 조건들에 얽매이지 않고 용기 있게, 독창적으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 항상 절도 있고 규율 있게 생활해야 한다. 혁명이란 미래 사회를 창조하는,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이다. 그리고 혁명가란 반혁명 세력과 투쟁하는 정치부대이다. 혁명가는 노동자이며 군인인 것이다. 노동자와 군인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규율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규율, 생활규율,

조직규율,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원칙이다. 규율이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진다. 30년 40년을 감옥에서 버티면서 사상적 순결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정치적 임무를 한시도 잊지 않았던 장기수선생님들의 사상성도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절도있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구현된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적들도 감동받을 만큼 절도있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상적 스승이자 정신과 철학을 가르침으로 깨우치기를 바랬었던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생똥맞게 선생님 말씀을 반추했던 것은 그 분의 말씀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너무나 공감이가고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공산주의자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과 풍모를 세 시간 넘게 설명하시고 반복하셨던 이유는 항상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중요시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어떠한 환경과 공간에서도 강철의 정치군인으로 우뚝 서 있으라고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겠는지요.

임사무처장님, 보내주신 책 소중하게 읽고 깨끗한 책으로 다시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폼 나지도 않고 빨리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외로울 때도 있고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결코 화려한 게 아니니까요.

전국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노동형제들, 통일일꾼들, 이주 노동자, 양심수 동지들 완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하는 항상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너그러게 포용하고, 서로 힘을 주고, 즐겁게 웃으며 견결하게 정역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단결입니다.

2007년 8월 18일 토요일
원주교도소에서 변외성 삼가 올립니다

변외성님은 현재 교도소내 불합리한 행정과 또 소속의 학맥 및 지연 등의 관계로 인한 재소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여 8월 28일까지 조식 금식 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재소자들이 단식을 할 경우 인권위원회에서 감사를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부당함에 맞서 그 후부터 8일 간 단식에 돌입했다가 9월 6일 단식을 풀었습니다. 단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진 않았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다함께 동지들의 저항과 투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면회기

임미영 | 양심수후원회 사무국

안동으로 갔다. 국토의 종횡으로 뚫어놓은 길 덕분(?)에 서울에서 출발한지 3시간 여만에 내륙 깊숙이 있는 안동에 당도하였다. 그렇게 평평 마구 뚫은 길이 도대체 도회지와 농촌의 거리를 얼마나 좁혔는지, 얼마나 많은 농촌의 생산물이 그 길을 내달리고 나가 농촌에 이익을 안겨다 주고 농민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줄 것인지, 혹은 이 길이 농촌환경을 어지럽히고 농민과 토지는 모조리 자본의 착취에 봉사하게 하는 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내내 의구심에 차서 길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을 내다보았다.

햇살은 타는 듯이 뜨겁고 날은 후덥지근했다. 서안동 톨게이트에서 내려서자마자 바로 안동교도소에 닿았다. 낮은 산의 기슭에 숨어있듯이 교도소가 있었다.

정문을 들어서서 접견예약을 확인한 다음에 포항으로부터 와우리를 기다린 포항건설노조 최규만님—그도 올 봄에야 석방되었다—을 만났다. 우리는 교도소 직원의 안내로 국가인권위원회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특별면회실로 갔다. 모처럼 칸막이 없는 열린 공간에서 동지들을 만나니 반갑기도 했지만 곧 그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반시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게 될 때에는 다만 밖에 있어서 자유로운 우리의 무기력함이 죄스러웠다.

이 친미 사대 자본정권은 유래없이 노동자, 그것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구속사태를 유발하고 시대를 거스르며 갈수록 그 형량을 장기화하고 있는 이때에 개인과 각 인권단체의 역할이 감옥의 동지들의 목숨 건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정창윤님(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사건으로 3년형

선고, 만기일 2008년 6월)

심진보님 (포항건설노조 포스코농성사건으로 2년 6개월 선고, 만기일 2009년 1월)

심진보님은 감옥의 동지들과 연대투쟁을 주도하며 항상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며 정창윤님은 연대투쟁에 앞장서며 자신의 투쟁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후원회에 자주 보내오고 있다. 두 사람은 이틀 전부터 심진보님의 편지분실사건으로 인해 연대단식을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각종 처우개선을 위한 눈물겨운 단식투쟁으로 얼굴과 몸이 깡말라 있었다.

심진보님이 두 통의 편지를 동시에 부쳤는데 그 중 한 통의 편지(어떤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관한 내용이며 더군다나 등기로 보냈음)가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다. 소측은 기껏 이 사건을 우체국의 실수로 떠넘기며 심진보님이 요구하는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반발하여 소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기 전에는 단식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좀처럼 견디기 어려운 여름 더위 속에서 단식을 한다는 말에 그만 가슴이 턱 내려앉는 것을 감추며 건강상태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의安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고 한시 바빠 공동의 화재로 바꾸기를 원했다.

우선 교도소의 시설과 행정, 재소자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의 특별면회를 주선한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광렬씨가 재소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 평가 지침에 따른 몇 가지의 설문 조사지를 내놓았으며 시간상 그 자리에서 작성하지 못하고 따로 편지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았다.

안동교도소는 1985년에 중구금시설로 지어진 건물

이다. 말하자면 중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내 독거사동(1평에 미치지 못하는)이 30%나 된다고 한다. 그런 용도와 또 지은 지 오래된 탓이라 타소와 비교해서 그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그런 비인간적인 조건에 재소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놓여 있게 된 것이다.

우선 독거사동의 화장실은 처음에는 폐달을 이용한 수세식변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소자들이 그 폐달을 떼내어 탈출에 필요한 도구로 쓸 수 있고 실제로 몇몇은 재소자에 의해서 폐달이 파손된 적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근무한 지 18년이 되었다는 담당직원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명도 없었어요”라고 대답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상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지금 파손된 것은 아예 일일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내릴 수 있는 반수세식화장실로 바뀌놓았다. 그래서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 심지어는 하수도에 연결된 관으로부터 쥐가 올라오기도 해서 팻병을 막아놓았는데 소측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껏 나무뚜껑을 만들어 주었다

시설의 파손이나 노후함은 즉각적인 보수 수리를 통해서 기본의 불편한 시설을 개선해나가려는 의지는 커녕 방치하거나 비밀에 부쳐 재소자들로 하여금 온갖 수치심과 모멸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화장실 문제 뿐 아니다.

독거사동의 콘크리트 벽은 종이벽지로 도배되어 있지 않고 페인트칠을 해놓은 상태라 겨울이면 겨우 복도의 스팀으로부터 전해져 들어오는 온기가 전부인 실내는 전혀 보온이 되지 않아서 냉기를 고스란히 몸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벽지로 도배를 할 수 없다는 소측의 변명에 이르러서는 그만 어이가 없어 일제히 웃을 수 밖에 없었다. 그 벽지와 벽 사이에 탈출이나 기타 교도소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장비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란단.

우리로서는 잠깐 동안 무얼 숨길 수 있는지 생각키워도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난 창에 쳐놓은 창살은 그 틈이 법 규정에도 어긋나게 손바닥이 겨우 손바닥이나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촘촘해서 햇빛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한다. 중세의 지하감방도 아니고 폐쇄적이고 법적 근거를 다 상실한 이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교도소의 출입문 아니 건물마다 대문짝만하게 내걸린 교정 교화란 말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 모두가 거짓말이 아닌가!!

모든 것은 보안상의 문제로 봉합되고 기껏 인간을 인간이하의 상황 속에 밀어넣음으로 해서 개진이나 교정교화는 커녕 더군다나 일반수의 경우에는 그 악조건을 용인하는 사회전체에 대한 폭력적 대응만을 가슴에 새기지 않겠는가.

그 악조건 속에서도 교도행정의 개선을 위해 벌이는 동지들의 저항은 과히 눈물겹다.

일례로 운동시간 10분 늘리는데 열흘을 넘는 단식을 통해서 겨우 얻어낼 수 있었다. 그것에 비해 민원인들이 들락거리는 접견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짧은 시간 머무르는데 불편한 것도 없을 터인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심진보님은 이런 예를 들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폐쇄적인 교도소내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소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극단적인 단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람이 실로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병과 개개인의 식욕의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로지 공동의 선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단식을 감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굶주림은 모든 이성의 작용을 마비시킨다. 사흘 굶어 담장 넘지 않을 사람없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단식은 인간이 초인적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이상 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간 최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단식을 감행하는 것이다.

상부의 직원이 말한다. “지금은 감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7, 80년대를 생각해보십시오!” 라고……

발상의 전환없이 복지부동의 한 전형으로서 그저 타성에 젖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인식의 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는지 그 직원은 미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만적인 시대에서 그렇게 멀리 나아가서 민주를 이루고 진보를 이루고 정치적 선진을 이루어 GDP지수 세계13위를 달린다고 날마다 떠벌리는 이때에 법제도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파괴당하고 있다면 그들이 인구전체비율의 단 0.00…의 퍼센트를 이루는 소수의 문제라 해도 그러한 소수가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인간 중심인 세상이 될 수 없고 폭압적 국가기구와 어깨동무한 자본만이 온갖 패악을 부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밖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구별지으며 교도소 내의 자발적 개선을 촉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함께 싸워 나가기로 하고 면회를 끝냈다.

면회를 끝내고 동지들의 더운 손을 맞잡고서 헤어진 뒤 동지들의, 사무치도록 그리운 가족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도 결코 눈물 흘리지 않았으나 같은 감옥에 있는 동지들을 위해 삼키려 하지만 터져 나왔던 눈물이 가슴에 남아서 우리는 서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도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굳은 동지가 되겠다고……

현재 안동교도소는 독거방의 화장실과 벽지, 장판 도배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알림니다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중인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 예금주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콩우유 돕기에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귀한 뜻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월 이후에 내주신 명단입니다.)

권오현 5,000,000 김희선 강덕환 100,000 신동철 50,000 이호승 1,000,000 최광운 500,000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님께서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일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 해서 생활지원비로 보상 받은 소중한 돈을 양심수후원회에 내주셨습니다. 그 중 5,000,000원은 북한어린이콩우유돕기 성금으로 내놓으셨고 또 5,000,000원은 후원회 부채(19회 총회 결산에서의 차입금부분)를 갚아주셨습니다. 여름 내내 35도를 오르내리는 집안의 더위를 홀로 견디실만큼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이런 일에는 흔쾌히 기부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빛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만큼 열심히 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5한마음통일산악회 첫 산행

나순석 | 회원

오늘은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딸내미들이 이번에는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아 단출하게 혼자 출발 준비를 하고 서둘러 당고개역으로 출발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가 중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령되는 무더운 날씨다. 15분 정도 늦게 당고개역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많은 회원들이 도착해 있다. 후원회 식구들 얼굴이 많이 보이긴 했지만 다른 단체들에서 꽤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지 50~60명은 될 듯하다.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나니 각 단체별로 인원 파악을 하고 북암산 산행을 시작한다.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을 오르는데 바람 한 점 없이 습도가 높은 날씨 탓에 온몸이 땀에 젖었지만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열심히 산에 오른다. 모두 힘들어 할 때 쯤 약수터에 도달한다. 통일약수터라는 팻말

이 보이자 다들 시원한 약수로 목을 축이고 땀도 닦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약수터에는 몇 가지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다. 철봉, 역기, 평행봉이 있는데 권오현선생님께서 평행봉 시범을 보이셨다. 연세에 비해 날렵한 몸놀림에 모두들 감탄을 하고는 항상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길 빌며 큰 박수를 보내고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앉을 수 있는 넓은 공터에 도착해서 산악회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 시작 전 산악회의 전통인 회원소개 시간을 가졌다. 회원 전원 모두가 소속 및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며 얼굴들을 익히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소개 시간이 끝나고 권오현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 초대 회장님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자주

민족통일과 6·15 공동선언의 지지 및 이행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동시에 단결을 돈독히 하기 위한 취지로 창설됐고 개별 단체 외에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열린 산악회이다. 또한 6·15산악회는 산상강연을 포함한 정기산행, 주요 전적지, 사적지 등을 기행 참관도 할 것이다.

창립 출범식 산행은 양심수후원회, 범민련후원회,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실천연대, 통일광장, 유가협, 민자통, 통일뉴스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했다.

회장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이 선출됐고 공동대표에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임종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김영미 두하나 전무,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등반대장에는 양심수후원회 산악회 신현익, 김재선 두 분과 범민련 산악회 이정태, 통일뉴스 산악회 강도웅씨를 선출했다.

권오현 초대회장은 민주인사들이 산을 자주 찾게 된 것은 유신체제 이후 정권의 폭압이 거셌을 때라면서 이 때 산은 단순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세속에서 할 수 없었던 결의를 다지고 몸과 마음을 닦으며 서로의 과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산과 민주화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산악회 명칭과 관련 당시에는 조직사건으로 연루되는 일이 많아 산악회 이름도 그럴싸하게 짓지 못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오로지산악회’, ‘거시기산악회’, ‘오악새산악회’ 등이 있었다고 하셔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셨다.

산악회는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세와 관련된 건강성도 찾았으면 좋겠다고 최근 정세가 유동적이나 공동목표인 자주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비정규직 등 사회문제까지 끌어 안고 산악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다. 창립 발족식이 끝나고 각자 정성스럽게 싸 온 점심으로 맛있고 푸짐한 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가 끝나고 정상으로 올라 갈 사람들끼리 모

여서 정상을 향하여 출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뒷풀이 장소로 이동하느라 먼저 하산했다.

불암산은 나무가 많지 않고 바위가 많은 산이라 정상까지 오르는데 숨도 차고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산이란 생각이 들 무렵 산등성이에 올라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더위를 씻어 내렸다. 잠시 산등성이에 서 기분 좋은 바람을 맞고는 위를 바라보니 어느덧 정상은 눈 앞에 있었다. 다시 힘을 내서 정상에 올라서니 506M라는 표시석이 보였다. 높은 곳이라 그런 무더위에도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오고 산 아래의 경치도 감상하고 산악회의 출범과 정상 등반이라 기쁜 마음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는 다른 일행들과 합류할 뒷풀이 장소로 이동했다.

산은 하산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불암산은 특히 하산이 더 어려운 산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 뒷풀이 장소인 등산로 입구의 너른 공원에 도착하니 먼저 내려간 회원들이 막걸리를 사다 준비를 해 놓았다. 워낙 많은 인원이 모이다보니 하나의 큰 원으로 둘러앉아 막걸리 한 사발씩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무리를 지어 그늘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범민련 이정태 등반대장의 사회로 산악회에 대한 평가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몸이 불편하셔서 산행 중간에 먼저 내려가셔서 오래 기다리신 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님의 말씀으로 자리가 시작되었다. “산을 50년 다녔다. 6·15를 기념하는 이런 산행이 마련됐는데 함께 오르지 못해 아쉽지만 온 몸 바쳐 이 산악회의 회원으로 활동할 것이다.”라는 단단한 음성의 의의장님의 말씀이 끝났다. 그리고는 양심수후원회 장기수선생님들과 만나기 위해 사무국에 전화했다가 우연히 산행에 참석하게 된 교육운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좋은 산행에 여러 선생님들 만나 기쁘다.”는 인사말 등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회원들의 짧거나 혹은 길더라도 결의 찬 평가들이 이어졌다.

폭염도 이날 산행에 참여한 회원들의 열정의 온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앞으로 이어질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의 번창을 빌며 산행을 마쳤다. 瘳

핏빛 동백꽃 같은 상흔을 안은 땅과 바다

— 여수 · 순천

강남옥 | 옴시롱감시롱 회원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란 바그너의 좋은 말이 있듯이 여행은 고여 있던 물에 새물을 갈아주는 생명력이며, 녹이 묻어있는 시간에 뿌드득 마른 행주로 반들반들하게 닦아주는 껍이다.

8월 25일, '옴시롱감시롱' 여름기행—핏빛 동백의 고장 아름다운 여수를 가는 길은 설레임 가득 안은 심장이 고동을 쳤다. 아침 10시 양재역을 출발하여 용인 부근에서 용인팀을 중간에 태워 버스전용차선으로 내달리는 길은 시작부터 여행의 순조로움을 예감해주고 있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회장님의 여행일정소개에 이어 여행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소개인사는 언제 보고 들어도 반갑고 정감이 넘쳐흐른다.

어느덧 시간의 발자취만큼이나 무럭무럭 크는 아이들 14명이 동행을 해서 더더욱 생기 있고, 여행의 기운이 활기차기도 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동안 무탈하게 만나서 감사한 마음은 함박꽃처럼 활짝 웃는 미소에 살짝 숨어 있었다.

옴시롱 감시롱의 회장님 아내인 김혜순님이 마련해 온 정성스런 부침개는 어찌나 쫄쫄득득 맛있던지. 파란 아오리 사과와 툇툇 튀는 과일즙은 또~ 차안에서 먹는 묘미가 얼마나 더하던지… 모두의 입을 즐겁게 하니 입이 귀에 걸렸다. 부지런히 내달린 버스는 한국의 승보사찰로 유서 깊은 절 '송광사'에 머물렀다. 절 입구에서 나물 비빔밥 서역서역 비벼 아이 어른 웅기 종기 모여앉아 툇툇 빈 그릇 내놓는다. 조계산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송광사는 합천 해인사(法寶寺刹), 양산 통도사(佛寶)와 더불어 한국 삼보사찰(三寶寺刹)로 불리고 있다.

많은 큰스님이 마음공부하며 머물러 간 곳. 우렁차게 울부짖는 매미와 새들 소리는 절 안의 정적을 깨워 주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뜨거운 햇살아래 절 주변으로 흐르는 계곡물에 청명청명 발 담그어 가며 손에 손 잡고 부처님 배알하니…… 어린 아이들도 금새 경건한 분위기에 젖어 대웅전 마루에 앉는다.

“아주 작은 것으로도 넉넉할 줄 알아야한다고”

“하루하루 많이 갖고자하는 욕망을 줄이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고”

부처님의 부드러운 미소 아래 흔들리는 풍경소리는 일깨워 주며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여행지인 순천만 바람은 송광사에서 맺혀온 이마의 땀방울을 씻어주고, 길게 뻗은 고훈반도와 여수 반도로 에워싸인 큰 만을 이루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었다.

순천만은 그 역사가 자그만치 5,000년이라 한다.

지구상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의 높이가 160m 쯤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서해가 육지에서 바다로 변하고, 한반도의 모양이 지금의 형태로 변화했다고 하니, 현재까지 그 오랜 역사를 숨쉬며 살아있어 내 앞에 펼쳐진 순천만은 한마디로 위대함 그 자체였다.

온갖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젖줄~! 넓게 펼쳐진 갈대군락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검은머리 갈매기, 황새, 저어새 등 전 세계습지 가운데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희귀종 조류가 많고 생태계연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순천만이 75km가 넘는 지역이므로 강과 바다가 이

어진 뱃길 따라 조그만 배를 탔는데, 배가 물살을 가를 때마다 하얗게 포말되어 날아오르는 물보라와 뿔뿔 날아오르는 새들은 까악~~ 깽~~~!!! 환호성을 절로 지르게 했다.

아무런 삶의 걱정이여 다 흩어져라~

무거운 삶이여,

순풍 따라 물살을 가르는 배처럼, 용기 있게 가르고 헤쳐 나아가거라~

강과 바다가 만나 물이 섞이는 곳~

강도 아닌 것이,

바다도 아닌 것이,

강과 바다를 에워싸는 갯벌들과 수많은 초록의 갈대들 우리들 사람들 하나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간힘을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으리.

초록의 갈대

맑은 물결

해맑은 우리들의 미소

모두가 하나여서 아름다워라~

순천만 갈대 사이로 만들어놓은 다리길을 쭉욱 따라 산책한다.

빨강, 파랑, 노랑... 오색으로 입은 여행객들은 어여쁜 꽃이 되어 그 길 위로 줄줄이 피어난 듯하고...

다리 길 아래로 수없이 노니는 게들, 앞으로 옆으로 기어 다니는 게들을 바라보느라 아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환호성이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머릿결 흔들리며 순천만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 저녁 식사 장소로 향했다. 저녁식사로 전라도 특유의 젓갈 많이 넣은 맛난 김치에 보쌈으로 맛있게 먹고 향일암 근처 숙소에서 오늘 하루의 짐을 풀었다.

여수 사회문화연구소 위원으로 계시는 조정일 선생님을 모셔 여순항쟁에 관한 자세한 강연을 듣고 내일 기행할 14연대 터 답사와 진남관, 형제묘 등에 대해 이해를 도울 역사적 배경과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일 아침 일찍 향일암의 아름다운 해돋이를 기대하며 곤한 꿈나라로 스르륵 들어갔다.

아침에 눈을 뜨니 밤사이 비가 내렸단다. 온 세상은



맑았지만, 향일암 일출을 관람하기 힘들만치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아침을 열어주는 향일암 계단은 축축히 젖어있고, 동백의 열매들이 줄줄이 떨어져 매미와 이름 모를 새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두 손을 합장한 채 오르는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들 살아가는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한 계단 오를수록 도착지 향일암은 다가온다. 해를 머금고 있는 곳—향일암...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없이 아쉬웠지만 구름사이에 숨은 해와 바다의 잔잔한 깔랑거리는 물결은 마음의 평화를 일깨워낸다.

향일암 들어가는 관문이라도 되듯 암자 근처에 있는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 두개 사이로 난 석문을 통과할 때는 기분이 팬스레 이상해졌다. 마치 이 세상 마감하고 하늘에 귀천할 때 들어가는 문인 것처럼.....

우리나라 전국 4대 관음 기도처로 유명한 향일암은 너무 이른 탓일까, 아니면 밤사이 내린 비 탓일까, 스

님 비질하는 소리 사각사각거리며, 여행객 없이 한산했다.

향일암 아래로 펼쳐지는 바다와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에 심호흡으로 가슴을 넓혀본다.

숙소로 내려와 달고 단 아침밥을 여수 돌산 갯김치 쪽죽 찢어 된장찌개에 맛있게 먹고 14연대 터로 향했다.

14연대 터는 1948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제 14연대가 제주도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장소이다. 미군과 이승만 정권은 철저하고도 강하게 여순 항쟁을 진압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해안절벽, 산기슭에서 죽어갔다. 누가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분명히 밝히지도 못한 채 50여 년 동안이나 1만 여 명의 주검들이 여수에 잠들어 있었다.

14연대 터와 형제 묘를 답사하며 가슴이 뻘뻘 찢어지는 듯하다.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하늘에서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기도했다. 여순 항쟁에 대한 강의, 책을 너무도 열심히 해주신 조경일 선생님, 선생님 설명에 차안에서도 귀 쫓듯 잘 듣는 학생이 되어.

만성리 해수욕장에 발 담그러 들었다.

해변에 아주 작은, 콩알 보다 작은 돌들. 돌들 덕분에 어찌나 바닷물이 파랗고 깨끗한지 어른도 침범침범 빠지고 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아이들이 일제히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니 까르륵 까르륵 아이들 함성에 함께 즐겨보는 어른들도 덩달아 신난다. 아이들 웃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순수하고 맑은 영혼……

한참을 침범거리다 갈치구이로 유명한 식당에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오동도에 갈 땐 코끼리 열차를 타고 어린애나 어린이 유치원생이 되어 신나고, 유난히 높이 솟아오르는 오동도의 분수는 한낮의 뜨거움을 미안해하듯이 출렁거렸다.

오동도를 떠나며

어느 덧 여행의 마무리를 향해 차는 상경을 서두르고 여행 내내 시작부터 끝마무리 까지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 여행소감을 서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가슴 한 켠에 만들어 주신 여행 회장님 그리고 많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했다.

한동안 넓어진 가슴으로 행복한 일상이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펼쳐질 것을 약속하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걸음은 아쉽기만 하다.



알립니다

북녘지역에 무더기비로 큰물 피해를 당해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수해의연금 모금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동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 에 금 주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초대합니다

양심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

지루했던 장마와 무더위가 가시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양심수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1989년 창립된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과 비전향장기수송환운동을 해오면서 구속양심수후원과 출소장기수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오늘, 통일애국인사와 노동자, 농민, 철거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주장해 온 양심수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들에게 영치금을 빠짐없이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출소장기수 지원사업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수후원기금마련을 위한 서화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화전에는 스스로 양심수였던 성공회대 **신영복** 석좌교수님과 **오병철** 선생님을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로 유명한 서예가셨던 **故 류락진** 선생님, 20년 옥고를 치르신 후 이문화회를 열어 후진 교육에 헌신하셨던 한문학자 **故 이구영** 선생님의 특별작품과 역시 오랜 옥고를 치루시고 서화에 매진하신 **유병호** 선생님께서 작품을 내주셨고 특히 (사)민족미술인협회의 유명화백들이 창작해주신 특별작품들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쁘시지만 꼭 오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깊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현

장 소 불일미술관(종로구 사간동 법륜사 내, 02-733-5322)

일 자 9월 14일(금) ~ 16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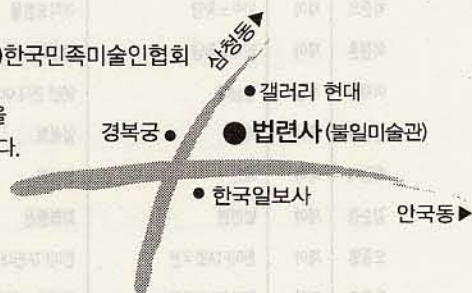
전시기간 오전 10시~오후 7시(14,15일) · 오전 10시~오후 5시(16일)

오프닝행사 9월 14일(금) 늦은 6시 30분

후 원 한겨레신문, 통일뉴스, 민족21, 말, 민중의소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안국역(1번 출구) 풍문여고를 지나 백상기념관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담길을 따라가면 난(란)스튜디오가 나옵니다.
사진관을 끼고 돌면 미술관 거리 초입에
기와지붕의 법륜사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 권오현(017-260-3333), 임미영(010-4563-0559)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7년 8월 10일 총 74명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적용법규	구속날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매결
김현호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폭력	2006-12-18	8월	2007/08	강릉교 139	기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2년6월	2009/01	경주교 410	기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폭력, 화염병	2005-06-08	3년	2008/06	경주교 500	기결
박상길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폭력	2006-09-19	1년+4월	2008/01	공주교 1302	기결
장송희	학생	전남대	한총련대의원	국보, 집시	2007-06-28			광주교 3302	기결
정희성	노동자	민주노총(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집시, 공방	2007-04-30			광주교 3313	미결
천병환	농민	전농(광주전남)	송정리 미군기지 철수시위(05)	집시, 특공	2007-05-29			광주교 3314	미결
이준상	학생	전남대	한미FTA반대 집회 등	집시, 특공	2007-04-13			광주교 3319	미결
전옥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국보	2004-11-18	3년6월	2008/05	광주교 5009	기결
김태훈	재야	전정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05-17	1년8월	2008/01	군산교 1215	기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2년6월	2009/01	김천교 631	기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3년6월	2010/01	김천교 709	기결
김훈태	재야	교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05-22	1년6월	2007/11	논산교 370	기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허종근 사망 규탄집회	집시	2006-08-17	2년	상고중	대구교 22	미결
김병일	노동자	민주노총(경북)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2년	파기환송	대구교 46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업방, 폭력	2005-07-05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업방, 폭력	2005-04-08	1년6월+1년	2007/10	대구교 86	기결
이오식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일지테크)	업방, 집시, 폭력	2007-04-22			대구교 53	미결
김양호	재야	민주노동당(대전)	한미FTA반대집회(11.22)	집시, 폭력	2007-01-03			대전교 1911	미결
정현우	재야	한미FTA저지(대전충남본부)	한미FTA반대집회(11.22)	집시, 폭력	2007-01-03		항소중	대전교 2050	미결
김창근	노동자	민주노총(충남)	한미FTA반대 집회(11.22)	집시, 공방	2006-12-30			대전교 2118	미결
박종갑	노동자	민주노총(대전)	한미FTA반대집회(11.22)	집시, 공방	2007-03-16			대전교 593	미결
정승중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2년6월	2009/01	마산교 1934	기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2년6월	2009/01	마산교 2053	기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폭력, 화염병, 치사	2005-06-08	2년6월	2007/12	목포교 22	기결
김종인	노동자	화물연대	파업	업방, 집시, 특공	2007-05-19			부산교 6040	미결
박준의	재야	민주노동당	이적표현물	국보	2007-06-18			서울교 105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شم회	국보	2006-10-24	6년	항소중	서울교 109	미결
이재춘	학생	충남대	96년 연대사태 관련	국보, 특공	2007-04-20			서울교 111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شم회	국보	2006-10-24	6년	항소중	서울교 113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شم회	국보	2007-02-01			서울교 151	미결
강순정	재야	범민련	화합통선	국보	2006-11-28	1년6월	항소중	서울교 197	미결
오종렬	재야	한미FTA범국민	한미FTA반대 집회주도	집시	2007-07-03			서울교 31	미결
정광훈	재야	한미FTA범국민	한미FTA 반대 집회주도	집시	2007-07-03			서울교 47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적용법규	구속날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타결
이시우	재야	비폭력평화물결	국가기밀 등	국보	2007-04-20			서울구 61	미결
박경수	학생	성공회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12-14	1년6월		성동구 1974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국보	2006-10-24	9년	항소중	성동구 33	미결
박정호	학생	성결대	한미FTA반대 집회 등	국보, 집시	2007-03-30			수원구 308	미결
최승희	학생	경기대	한총련대의원(13기)	국보, 집시, 특공	2007-06-11			수원구 319	미결
김영재	노동자	금속노조(광주전남)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관련	업방, 공방	2007-04-16	2년	항소중	순천교 127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2년6월	2009/01	안동교 1138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폭력, 화염병, 처사	2005-06-08	3년	2008/06	안동교 15	기결
이기용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협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폭력	2006-12-18	8월	2007/08	여주교 873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영예훼손, 정통법	2005-02-22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김도형	재야	한국대학생물교연합회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01-26	1년6월	2008/08	영등포교 906	기결
송인옥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11-23	1년6월	2008/06	영등포교 907	기결
박 철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11-07	1년 6월	2008/6	영등포구 2426	기결
고동주	학생	카톨릭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09-21	1년6월	2008/02	영등포구 2437	기결
정재훈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7-05-22	1년6월	2008/12	영등포구 2542	기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협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폭력	2006-09-19	1년6월	2008/04	영등포구 3402	기결
연제일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협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폭력	2006-09-19	1년	2007/10	영등포구 3405	기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국보	2006-10-26	4년	항소중	영등포구 3413	미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국보	2006-10-26	5년	항소중	영등포구 3476	미결
안현호	노동자	현대자동차 노조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업방	2007-03-26			울산구 12	미결
박유기	노동자	현대자동차 노조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업방	2007-03-26			울산구 13	미결
임귀섭	노동자	현대자동차 노조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업방	2007-03-16			울산구 34	미결
박원호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파업	교통방해, 폭력	2007-03-26			울산구 44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협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폭력	2006-09-19	1년	2007/09	원주교 222	기결
유병문	학생	고려대	한총련물탈퇴(13기)	국보, 집시	2007-02-24			인천구 1706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화염병, 처사	2005-05-03	6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위두환	농민	전농(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집시, 폭력	2006-11-26	1년6월	2008/06	장흥교 50	기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국보	2006-10-23	2년 6월	2009/05	전주교 2500	기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03-06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김영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2년6월	2009/01	진주교 9	기결
이웅석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2006-08-18	1년6월	2008/02	청주교 487	기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업방, 폭력	2006-07-13	1년6월	2008/01	포항교 3079	기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회반대	폭력, 화염병	2005-06-08	3년	2008/06	홍성교 200	기결



장기수 선생님 근황

—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소양심수 선생님을 찾아볼 수 있는
회원들의 연락 기다립니다

처방전 표기방안 문제로 오후 파업 휴진을 하게 되신 김지영 부회장이 사무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휴진 날 얼마 전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혼자 생활하시는 정관호선생님 댁을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래서 김지영원장과 사무실에 서화전 연락작업을 도우러 나온 모성용운영위원과 함께 선생님 댁에 찾아 뵈었습니다. 다행히 숨씨 좋은 김연옥회원님이 끓여준 해물탕과 반찬 몇 가지를 챙겨 갔는데, 선생님께서는 햇반으로 식사를 하고 계시다 하셔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금년 후원회 소식지 1월호에 안진걸씨가 인터뷰했던 정관호선생님께서는 1925년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나시고, 18살 때 독서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으며, 현재 평양 외국어대를 졸업하신 후 원산 교원대학 문학사교수로 계시다가 50년 전쟁 당시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전남 강진으로 내려오셨다가 50년 말에 전남도당 선전부에 합류, 54년 백운산에서 검거되기 전까지 전남노동신문 주필로 계셨습니다.

그 4년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평생의 숙제이자 마지막 소원이셔서 이북에는 8남매가 있고, 이남에는 연고가 없으심에도 2차 송환을 할 의지가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려 보내질 때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4년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음성 속에 묻어나는 강한 의지가 일행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회원 여러 명이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자리였지만, 혼자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런 마음들이 전해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은 두 명뿐이니 두 명에서 그 많은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찾아뵈어도 다른 일은 제쳐둬야 하는 실정임을 회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 근처 선생님들께 찾아 뵈고 싶은 회원 분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을 받아 볼까 하고 짧게 다녀온 소감 올립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 (02)874-4063 | 이-메일: yangsimu@hanmail.net

01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통일 선봉대 발대식 및 8월투쟁 선포식을 갖고 60년 넘게 군사적 대결의 당사자인 북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과 전쟁의 근원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다짐하다. 통일선봉대는 8·15 통일 행사가 예년처럼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지 않고, 반대로 서울 쪽에서부터 경기도와 충청도를 지나 본 대회가 열리는 부산으로 집결한다.

02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인사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8·15 광복절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복권, 수배해제할 것을 촉구하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의 여는 말,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투쟁위 이호동위원장, 김성환씨 부인 임경옥씨 등 석방촉구 발언과 민가협 이영상임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943명의 시민, 사회단체 인사 선언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다. 소수영 임미영 함께 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안정을 위한 6자회담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때에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또 다시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려 하는 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며 <을지포커스렌즈>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비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제673회 목요집회가 열린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여는말에 이어 8·15광복절 즈음하여 임경옥(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부인)의 노동양심수 석방 촉구,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장의 양심수 석방촉구 1천인 선언 기자회견 보고, 임기란 운영위원의 8·15 즈음 특별사면이 없다고 발표한 정부 규탄 발언이 있었음. 김혜순 임미영 참석

03

민주노동당은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피랍국민 무사귀환, 즉각 철군, 군사작전 중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포로교환을 수용하라고 미국의 직접 행동을 촉구하다.

04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8·15 민족통일대축전(8·15대축전)을 북과 남, 해외에서 분산개최하되 최근 일본 정부와 보수 우익들의 재일동포 탄압에 관해 공동성명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고 6·15 남측위가 밝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해외대표단의 입국과 신변안전에 관한 '담보'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을지포커스 렌즈> 연습이 분산개최의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국민행동주최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학생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희생자 추모와 아프간 점령 종식, 포로교환 요구 수용촉구 군사작전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향린교회 나성국목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정숙 공동대표,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은 한결같이 한국군의 즉각 철수와 미국에게 포로교환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다.

05

서울 중랑구 홈에버 면목점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3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홈에버 타격 및 봉쇄투쟁을 벌인다. 이에 맞서 경찰은 6개 중대 6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전경버스로 홈에버 출입구를 둘러쌌고, 사측은 100여 명의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 시민들의 출입을 막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랜드 자본에 맞서는 투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 투쟁을 이겨야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며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이날의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매장 앞 1인 시위, 매장 타격투쟁, 봉쇄투쟁 등 전국의 매장에서 진행되다.

●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8기 자주통일선봉대(이하 자주통일선봉대)가 발대식을 갖고 10일 남짓한 공식 일정의 첫 발을 떼다. 올해 자주통일선봉대는 중앙통일선봉대 70여명, 지역별통일선봉대 700여명 등 총 80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 활동을 하게 된다. 자주통일선봉대 8기 대장을 맡은 문종식 금속노조 통일위원장은 전국의 미군기지 타격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다.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도 축전을 통해 “이번 통일선봉대 활동은 공동선언실천에 펼쳐나선 온 겨레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내외분열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고 호소하다.

06-----

● 광화문 미대사관 옆 KT 건물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성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양심수후원회 등 17개 단체 공동으로 제 95차 반미연합집회를 열고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범남본이태형집행위원장,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등 결의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이 부시 미대통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다. 항의서한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위한 투쟁 결의를 다지다. 참가자들은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와 더불어 한국군의 전작권통제권 환수 절차가 “한반도 위기관리권한과 정보관리권 등을 유엔사에 넘겨주어 미국의 한반도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작전통제권 환수절차에 대한 전면 중단과 전제조건 없는 즉각적인 작전권 반환을 주장하다.

07-----

●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는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백낙청 상임대표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북측이 제안한 행사 분산 개최를 수용하면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다. 부산본부는 전날 공동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회 서울 개최를 결정하고, 이 같은 입장을 운영위원회 및 앞서 열린 6·15 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의에 보고하다. 이날 자리에서 운영위원들은 8·15 분산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최근 8·15 행사 무산의 원인이 된 8월 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해외측 인사 선별 입국 문제 등과 관련, 남측위원회의 입장을 정부에 표명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사면위원회는 한미FTA저지 범국민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를 구속한데 대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배치된다고 두 대표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다. 양심수선정은 7월 26일에 결정된 것으로 이 날 발표하다.

● 노동자통일선봉대와 함께 대학생자주통일실천단과 ‘동두천 미용실 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한 통일선봉대는 지행역 근처 시민공원에서 “미용실방화사건 미군규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경기북부 진보연대 윤한탁 상임대표는 동두천이 미군기지 때문에 범죄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호소했다. 촛불문화제는 다양한 장르 음악과 그에 따른 율동들이 선보였고 미용실 방화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최강성씨는 발언을 통해 “이 싸움은 단순하게 처벌을 받은 것을 떠나서 더 이상 이런 미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 광화문 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보기 8월 모임을 갖다. 한찬욱 모성용 조동문 김래곤 임선영 소수영 송지영 임미영, 통일광장 변숙현 이운 선생님 권영국선생님 외 동료분 20여분 등 많은 회원이 함께 했음

08-----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는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공동대표의 여는 말, 권오현 양심

수후원회장,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 등 석방촉구발언과 이영 민가협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서울 중앙지법 제 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부장판사) 심리로 한미FTA저지 범국민 오종렬, 정광훈 대표에 대한 이른바 집시법 등 위반혐의 첫 공판이 열린다. 검사의 기소요지 발언에 이어 변호인단을 대표해 최병모 전민변회장은 집회와 시위가 헌법상 권리임과 사전허가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집회에서 우발적 사건 등을 대표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한다. 이어 오종렬 공동대표는 “집회를 빠짐없이 신고했고 폭력시위를 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했다. 한미FTA저지 투쟁은 온 국민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일이었다.”며 국가권력과 사법당국은 민중의 생존권과 사법정의 구현에 힘써 달라고 한다. 정광훈 대표도 한미FTA 협상을 4대 선결과제 등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조차 소외시켰다. 모든 집회를 신고했고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모두 진술하다. 이어 검사의 직접 심문이 있었으나 공소내용의 범죄성을 부인하다.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는 종로 보신각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인 행동의 날' 집회를 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5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과 조합원들의 강제연행을 규탄하다. 이들은 특히 정권과 사회가 이 사태를 방지할 경우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와 위장도급의 확산, 노동조건의 저하 등을 들며 이 문제의 해결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다.

● 청와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발표하다. 이 합의서는 “남북 정상 상봉은 6·15정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히다.

●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한국통신) 앞에서 '2007 서울지역 자주통일 학생실천단'과 '제2회 미군없는 아름다운 서울 대행진' 참가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위협, 을지포커스렌즈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결의대회'가 열린다. 한국진보연대(준)한상렬 공동준비위원장은 그간 활동을 정리하면서 반한미군기지 문제, 한미FTA 문제, 8.28 남북정상회담 내용과 한반도의 모든 악의 근원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야기하는 알찬 문화제를 서울 지역별로 개최할 것이라고 결의하다.

● 양심수후원회 제19차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전월 회의록 보고에 이어 7월 활동보고와 재정보고가 있었고 중요한건으로는 8월 산행부터 시작되는 '한마음 통일산악회' 구성원 및 연락작업과 9월 열리는 후원회 서화전 준비위와 실행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였음. 권오현 김지영 안병길 이현근 한찬욱 김귀옥 임미영 송지영 참석하다.

09-----
●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민주노동당과 국가보안법폐지 학생대책위 공동으로 '박준의 당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18일 구속된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 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대표 한용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사무총장 등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으로 북한에 반국가단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 서울 중앙지법 단독심리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박준희 정책국장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첫 재판이 열린다.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에 이어 박준희씨는 이른바 한총련 배후조정 조직결성과 학습자료 제작 등 공소내용을 부인하다.

● 충남 통일선봉대원 60여 명과 중앙 통선대 중앙통선대원 30여 명 등 민주노동당 통일선봉대원 90여 명이 천안 흥에버 매장에 들어가 불매운동을 벌이려다 경찰에 강제 연행

되다. 연행자 36명은 모두 천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려 했음.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제674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임기란 운영위원의 여는 말에 이어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의 현재적 의미와 오종렬·정광훈을 석방하라는 촉구발언이 있었음

10

-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범민련남측본부 민주노총 평통사, 양심수후원회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환영 및 성과적 결실을 위한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다. 소속단체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권오창 실천연대 공동대표 등 의미있는 결의 발언과 이규재 범남본 남측본부의장이 청와대에 보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적 결실을 위한 제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낭독하다. 의견서에서는 '남북 사이 군사적 충돌을 제거하는 근본대책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판문점에서 조미간 대령급 접촉을 갖고 오는 20~3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공식 발표된 데 대해 엄중히 항의 규탄하고 이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미군측에 통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성명에서는 '2·13합의 이행과 6자회담에 미치게 될 파국적인 후과에 대해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남조선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지난 시기 전쟁 때처럼 미군의 총알받이로 나선다면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수치스러운 참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하다.

- 서울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전민특위 정유미 동지의 '아주 특별한 결혼식' 열리다. 15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혼식에는 위암투병 중인 동지의 결혼식이

라 참석한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하였지만 각각 활옷과 사모관대 차림으로 갈아입은 '자니'와 정유미동지가 정통 혼례식으로 백년가약을 맺는 순간, 하객은 이들에게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 1년 전 위암에서 전이된 난소암 4기(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정유미동지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삶이 한 정씨는 14살 때인 1976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대학 졸업 후 고국의 민주화와 자주, 그리고 통일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 오던 중 미국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자니' 씨를 만나 같이 통일운동에 뛰어들다. 이후 정유미동지가 병중에 있을 때 곁을 지키며 정유미동지의 또 다른 동지가 되어주었던 '자니'는 결혼을 통하여 정신적 안정을 되찾게 해준다. 이날 행사는 동지의 쾌유를 비는 '아름다운청년들, 희망새_범민련교육홍보위의 청년들이 공연을 해주어 정유미동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권오현 한찬옥 모성용 소수영 강덕환 임미영 참석함

11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2007 서울지역 자주통일 학생실천단과 제 2회 미군없는 아름다운 서울대행진 참가자 300여 명이 한반도 평화위협 을지포커스렌즈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결의대회'가 열리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공은희 서울통일연대 사무처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 부분부장 등 결의 발언이 있었음. - 마치고 다음 실천활동현장인 뉴코아 강남점으로 이동하다.

13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제2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희, 민병석 등 10명에 대한 토지 총 156필지 시가 257억원(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하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이 러,일전쟁 개전시인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행위를 통해 취득해 현재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증여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친일재산조

사위는 7월 말 기준, 친일반민족행위자 109명의 2,293필지, 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당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

☞ 제 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 상봉이 13~14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화상상봉에서는 남북이 각각 40가족씩으로 하여 대한적십자사 서울불사 및 인천, 부산 등 8개 지사의 12개 상봉실과 평양에 설치한 10개 상봉실을 연결하여 화상상봉 시스템을 통해 만나게 된다. 남측에서는 40가족 179명이 재북가족 89명을 상봉하고 북측가족 40가족 126명이 재남가족 169명을 만나게 된다.

☞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인근 용산미군기지 5번 출구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평통사 공동으로 '대북침략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발표하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항의서한을 통해 "미국은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부응해 군축협상에 나설 것,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완전한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북침 전쟁 연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중단,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다.

☞ 지난 7일 이후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양에도 폭우가 내려 보통강호텔 1층이 침수되고 대동강 유보도(산책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등 수해가 심각하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3일 평양발로 보도하다. 중앙통신은 7일 자정부터 12일 오후 11시까지 강원 평강 662mm를 비롯해 이북전역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 각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복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하다. 중앙TV는 황해북도 곡산군에서 하천 둑이 파괴되고 상수도관이 끊어진 것은 물론 군 소재지로 들어가는 다리와 수백 세대의 주택, 공공건물이 무너졌으며 수 천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유실되고 농작물이 토사에 매몰됐다고 밝혀 황북 지역의 피해가 심각함을 알렸다.

14-----
☞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리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부산 통일학교 사건 등 그간의 전교조를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 사건의 부당성을 강조하다. 학부모들도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한국진보연대(준) 한상렬 공동준비위원장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부산대회를 사수하지 못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쟁연습 중단을 위해 우리 대로부터 싸움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도 학생운동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다.

☞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한반도 평화위협 을지포커스 렌즈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결의대회'를 열다. 각 부문별 통일선봉대와 소속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상렬 공동준비위원장의 대회사,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조현삼 총대장 전농 통선대 이진구부대장 등 결의발언과 문예공연 등이 함께 진행되다.

☞ 중앙대 대운동장에서 노동자, 범청학련 통일선봉대와 진보연대 소속 회원 등 10,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광복 62돌맞이 8·15 행사 전야제인 '남북정상회담 환영, 을지포커스렌즈 중단 반미반전과 주한미군철수 자주통일결의대회'가 열리다. 정보선 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사회로 대학생 30여 명의 힘찬 울동으로 시작, 각 부문통일선봉대장들의 결의발언이 있었고 제1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토순례대행진 '에 참가한 어린이 통일선봉대원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을 읽는 순서가 있었음. 이어 '6·15 시대를 빛내자!'라는 제1부에서는 한상렬공동준비위원장의 대회사, 구속된 오종렬, 정광훈 두 대표의 영상 결의를 보여주었고 제 2부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의 길로!'에서는 극단 '꾼'의 시극 '결판'의 주한미군철수 풍자극에 이어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정치연설이 있었음. 제 3부 '민중의 바다에 총단결의 뜻을 올려라!'에서는 문경식 전농의장이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대중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려고 하다. 이러 희망새, 우리나라

등 노래패들이 모두 나와 '주한미군철거가', '들어라 양키들' 등 노래 공연, 민족춤 '출'의 단일기를 들고 자주통일의 상징 몸짓 공연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진보연대 깃발 아래 가자 가자!' 구호 아래 '한국진보연대 건설'이란 현수막에 매달린 물포켓 20여 개를 솟아오르게 하는 상징의식으로 모두 마친다. 권오현, 임미영 등 함께 하다.

창미디어에서 후원회 소식 190호 기사내용, 최종교정을 보아 기획사에 넘김. 여혜정, 모성용, 송지영, 권오현 함께.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사이 1차 접촉에서 대통령과 대표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가기로 했으며 대표단 규모는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 150명 기자단 50명 등 220명 합의하다. 또한 남측의 선발대는 30명으로 하고 7일 전에 명단을 보내기로 하다. 이날 남북 접촉에는 남측에서 이관세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과 북측에서는 최승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함께 하다.

15

중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의장 윤기진)는 결성 15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투쟁결의문을 발표하다. 남북 범청학련은 남측본부 류선민 상임부의장이 낭독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거시키는 집행관으로 살아나갈 것과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막아내고 9.8미군강점일을 전국방방곡곡에서 미군철수의 대합성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을 결의하다. 이에 앞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의 발언과 고 문익환 목사의 시 '나의 길 당신의 길' 낭독으로 범청학련 15주년을 축하하다.

혜화동 대학로에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남과 북, 해외가 분산 개최하는 '8·15 민족통일대회'를 열다. 통일선봉대원 등 4,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김제남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백낙청상임대표의 대회사, 박용길 명예대표의 격려말, 6·15 남측위 여성본부 이명신상임대표의 정치연설,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의 6·15남북해외측위가 공동으로 결의한 '일본정부의 재일

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 등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다. 제2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축하, 한반도 평화통일문화제에서는 풍물굿패 '살터' 이성호 대표 사회로 안치환, 구리소년소녀합창단, 민족춤패 '춤', 노래극단 '희망새', 노래패 '우리나라' 등 공연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문경식 전농의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을 낭독하다.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대학로에서 6,0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환영!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중단! 미군없는 한반도 실현 자주통일 범국민대행진'에 들어가다. 100여 명의 풍물패가 앞장서고 방송자, 사회단체 대표단과 각 부문 단체별로 각종 표현물을 갖고 시민들에게 선전홍보를 나누어 주다. 대학로-청계로-을지로-시청 앞 종로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는 동안 10,000여 명으로 대열이 늘어나다. 이어 교보빌딩 앞 종로거리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남북정상회담 환영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미군없는 한반도 실현, 자주통일범국민대회'를 열다. 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과 춤패 '맥박' 등 몸짓공연에 이어 민주노동당 문성현대표,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한총련 류선민의장 등의 결의발언과 김홍현 전빈련의장과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다. 양심수후원회는 후원회 깃발과 '국가보안법 폐지' 펼침막을 준비해 가지고 행진에 함께 하다. 모성용, 소수영, 송창학, 김은, 김래근, 한찬욱, 이용준, 신현익, 모지희, 이승미, 박윤경, 송지영, 권오현 함께 하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와 여고생, 국회의원들은 물론 독일, 대만 등 해외 시민단체들과 함께 제774차 정기수요시위를 가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행동주간(Global Action Week 8-19일) 중 해방 62주년 세계연대행동의 날인 이날 오전 12시 세계연대행동의 날 서울집회를 주관하는 50여 단체의 소속회원들과 이화외고, 한영외고 학생들 등 400여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연대발언에 나선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한명숙 전 총리,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미경, 장항숙 의원 등이 자리하여 일본의 위안부 문제 조속해결을 촉구하다.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 '바닥소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와 연대해 나갈 것을 상징한 공동결단식과 '기차놀이'로 마무리되다.

- 서울 광화문 일본대사관 인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일본의 대북적대정책 재일동포탄압 중단 촉구 집회를 열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공동대표 등 결의발언과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이 낭독한 촉구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는 9·19 공동성명 합의 이후 2·13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지금까지도 북을 겨냥한 군비증강을 비롯하여 대북경제봉쇄를 전면적으로 감행하는 등 끈질기게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하다. 또, 총련 건물을 경매로 매각시킨 것과 만경봉호 입항 중지, 북 송금 예금 통제, 재일동포 탄압을 중단할 것과 군국주의 우경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에 대한 성실한 사과 및 보상, 동북아 평화 공존 정책을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하다.

16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제675회 목요일집회가 열리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말에 이어 권오현 공동의장의 8·15대회 보고 및 8·15 양심수 사면 조치 없었던 것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임기란 운영위원의 8·15 사면이 없는 것에 대한 규탄, 양심수 사면 촉구발언이 있었음.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일부 간첩죄, 회합통신죄 등을 기각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조사 진술조서 등 일부는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이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출력해 유죄 증거자료를 삼은 문건 중 53건만 인정하고 그 외는 무죄라고 하다. 또한 이진강씨의 시민사회단체 동향을 장민호씨에 전달한 내용도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간첩죄 부문을 무죄로 하다. 선고에서는 1심 내용을 파기하고 장민호씨에게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 원 손정목씨에게는 징역 4년, 이진강 이정훈씨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최기

영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하다.

- 6자 회담 2·13합의 2단계조치인 핵시설 불능과 방안 등을 협의하는 비핵화실무그룹 회의가 중국 라오닝성 선양에서 열리다. 이번 회의에는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리근 이북외무성 미국국장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부장, 베르레니코프 러시아 외무부 본부대사, 미국의 힐 차관보, 스다 아키노 일본 외무성 북핵담당 대사 등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하다.

- 독일 베를린의 히로시마 거리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6·15유럽지역위원회와 베를린 한인회 공동으로 '재일동포 탄압 중지'와 정신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아베정권규탄대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다. 또한 대회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환영입장성명서도 채택하다. 성명에서는 '한(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경제구축,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과 냉전시대의 잔재 국가보안법폐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경제협력과 민족자주자립경제 토대구축 등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다.

17

-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지역의 수해로 인해 오는 10월 2-4일로 연기되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북한은 오늘(8.18)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명의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와, 최근 북한지역에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8월말로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10월초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할 것을 제의해 왔다"고 밝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제190호 발송작업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송작업에 여러 회원이 함께 하여 힘을 덜어주었습니다. 조순덕어머니, 김래곤, 김재현, 모지희, 김혜순, 김호현, 모성용, 소수영 함께 했습니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른바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고 연합 뉴스가 보도하다. (관련기사 보심)

19

- 6·15한마음통일산악회 건설 준비위는 불암산에서 창립 산행을 갖고 '6·15한마음 통일산악회'를 출범시키다.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6·15산악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자주민주통일과 6·15공동선언지지, 이행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동시에 단결을 돈독히 하도록 하기 위해 창설되다. 이날 창립출발식 산행은 양심수후원회, 범민련후원회,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실천연대, 통일광장, 유가협, 민자통, 통일뉴스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암산 자락에서 열리다. 참가자들은 회장에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을, 공동대표에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박중기 추모연대의장, 임종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김영미 두하나 전무,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뽑다. 등반대장으로는 양심수후원회 산악회 신현익, 김재선, 범민련후원회 산악회 이정태, 통일뉴스 산악회 강도웅씨를 각각 선임하다. 다음 등반일은 9월 30일로 북한산을 산행할 예정이다. 참석자 권오현 김교영 김영승 김영식 류종인 신동철 송지영 신현익 신재용 김재선 정인태 이향숙 나순석 이현근 모성용 이병진 이호준 강덕화 이호준 김래곤 소수영 임미영 박윤경 백승평 탁무권 한찬욱 길찾기 순례단 송송이 윤지희 광동우 문명석

- 교육운동에 뜻을 둔 대학생 송송이, 윤지희, 광동우, 문명석씨가 한 달 여에 걸쳐서 길찾기 순례 중 산행을 함께 하고,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희철선생님과 김영식선생님과 저녁을 함께 들며 많은 얘기를 나눔

20

- 서울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 주최로 한반도 평화여행 남북정상회담 걸림돌 을지포커스

렌즈 전쟁연습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를 규탄하는 것과 함께, 미 정부에 "작전계획 5027-04를 비롯한 모든 전쟁계획을 폐기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다. 한상렬 공동준비위원장의 여는 말, 권오현양심수후원회장, 김지선 학생연대 대표 등 규탄발언에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을지포커스렌즈 전쟁연습은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의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전면전 대북 공격연습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모의 전쟁연습"이라 규정짓고 북의 수해복구에 온겨레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 2차 공판이 열리다. 변호인 신문에서 변호인단은 한미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공청회나 국회를 통해 협상절차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거나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이에 범국민이 집회를 통해 한미FTA의 폐해성을 알리려 했으나 경찰 측의 집회 봉쇄와 과잉진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경찰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범국민의 집회 신고에 대해선 예외 없이 금지통보를 내리며 '자의적 권한 행사'를 했고, 이에 반해 범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금지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 대응을 펼쳤던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국민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권력 남용사례들을 열거하다. 이날 검찰 측은 140여 가지의 증거물을 제시했지만, 변호인단의 부동의로 검찰 측 피의자 신문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류됐다.

- 서초동 법원 앞에서 각계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 즉각 석방'과 '한미FTA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반미여성회 구순례 인천 사무국장과 영화인대책위 소속 연기자 권병길씨가 공동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재판은 한미FTA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한 '정치재판'이며 "전형적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한 '불공정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봉쇄' 방침을 강행, 집회자유를 원천 부정

했다"고 규탄했다

- 서울 고법 형사 4부(재판장 김한용부장판사) 심리로 강정구교수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검사의 의견, 변론, 최후진술 등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강정구교수는 지난 재판에서 명확하게 이번 공판에서 결심을 한다는 교지를 받지 않아 최후진술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여 2주 후로 결심공판을 연기하다.

-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계산에 위치한 탱고(TANGGO-Theater, Air Navy Ground Operation) 기지 앞에서 범남본과 평통사 공동으로 '을지포커스 렌즈 연습 강행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을 촉구하다.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평화군축팀장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등 규탄발언과 홍근수 평통사 공동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마치고 이 연습이 진행되는 31일까지 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 가기로 하다.

공덕동 계승연대 회의실에서 계승연대 47차 상임대표자 회의를 열다. 활동보고에 이어 ○ 민주화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임조사위원 위촉 예비 후보진 ○ 제18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개최준비건 등을 논의하다.

21

- 서울 강남역 6번 출구에서 '구속노동자사면 석방촉구공동행동'이 주관하는 거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면석방촉구 서명과 서화전을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한다. 이날 구노회 전해투 성원과 함께 노무현정권 들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량 구속사태를 알리는 등 이 정권의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다. 송지영 모성용 송창학 노혁 임미영 함께 하다.

-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재판장 권택순 부장판사)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희생자 8명의 유족인 강순희씨의 45인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올 1월 31일까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있었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책임의무를 회

피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각 세대별로 20~30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다.

- 서울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출범하다. 서울 북부 상임대표로는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이 공동대표로는 통일광장 권낙기 공동대표, 강동구 하늘심교회, 김종수목사 주거환경연합 김길수 사무총장, 서울노동광장 이춘자 대표를 선임하다.

22

-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진행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즈음한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린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한용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다함께' 조승희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서다. 가운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절대악 혹은 불가양립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어 가장 선결적인 요건인 신뢰의 형성 자체를 가로 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주장하다. 김 위원은 '유엔사가 지속되고 주한미군 역시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보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평화협정을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 관념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대선의 쟁점은 경제와 평화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대선에서의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다.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 노동자 50여명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고용이 불안해졌다며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다. KTX-새마을호 열차승무지부, 롯데호텔 비정규직본부, 이랜드일반노조 등 10개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비정규투쟁사업장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비정

규직법안을 비판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도 이어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비정규직리입법 수용 요청서'를 전달하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근로기준법에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명시할 것 △간접고용에 관한 노동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것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하다.

- 통일부 홍익표 정책보좌관은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교전과 NLL 논란에 관한 2가지 진실'이란 글에서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와 남북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면서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다. 특히 '최근 북측이 수정 제시한 해상경계선이 기존의 NLL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면서 '남북간 협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다.

23

-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사장 최병모, 이하 겨레하나)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북녘수해복구돕기 운동 선포식을 열고 대국민 모금운동 캠페인에 돌입하다. 겨레하나와 인터넷매체 <통일뉴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캠페인은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동참해 민주노총은 각 연맹별로 시설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 지원계획을, 전교조는 학교시설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와 기자재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 계획을 밝히고 농민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시멘트 지원 계획을,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전국 53개 지역 단위별로 모금운동을 벌여 시멘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 북한 수해피해 현황을 담은 선전홍보물을 설치하고 모금운동을 벌였고, 2부 행사로는 타악그룹 '리듬&씨어터',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 어린이 공연단 '늘봄', 가수 김희진씨의 공연이 이어지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이 주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

심수석방을 위한 민가협 676회 목요일집회가 열리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공동의장의 한미FTA협정의 부당성과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 석방 촉구발언, 한미 FTA 저지-범국본, 최근호 부장의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교도소로 구속노동자 정창윤님과 심진보님을 면회하였습니다.

이날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님 포항건설노조 최규만님과 함께 특별면회형식으로 두 분을 3시간 여에 걸쳐 특별 접견실에서 만나서 교도소 내 인권문제 시설이나 위생상태 등 폭넓은 의견을 듣고 또 교화과장을 만나서 두 양심수의 의견이나 제안을 잘 전달해주고 개선할 것을 약속받고 국가인권위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정리해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원회 회원들에게 안부와 감사인사를 전 하였습니다. 힘내십시오. 모성용 임미영 함께 했습니다.

24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북 수해지원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374억 원 상당의 수해 복구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밝히다. 주요지원 품목은 세멘트 10만 포, 철근 5천 톤, 8톤 트럭 20대, 5톤 트럭 66대, 연료 500톤, 피치 2만톤이라고 하다.

- 일산에 계시는 통일운동가이신 안재구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듣고 저녁 함께 하였습니다. 강덕환 김재선 모성용 한찬욱 송지영 함께 했습니다.

25

-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한국통신)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준)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북의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수해로 인해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수해복구에 함께 나서야 하며 북 동포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공동대표 등 대표자들은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

달하다.

-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5일자 북의 중앙통신보도 중앙통계국 집계자료를 발표하다. 집계에 따르면 사망 실종 600여명, 부상자 수천명, 이재민 100만, 농경지 침수 유실 등 20여만 정보, 산업시설파괴 1000여동, 도로 2000여개, 공공시설 파괴 8000여동, 산사태 200개소, 도로 2000여개소, 철도 1,000여개소 78,000㎡, 도로 2,000여개소 600km(평양-원산간 평양-개성간 고속도로도 포함), 교량 2,200개소붕괴, 탄공 90여개소 갱 300개 막장 170여개소 전력, 변전소 수십개 전주 800여개 수도망 100개소가 파손되었다고 하다.

- 음시롱감시롱은 '핏빛 동백꽃 같은 근대사의 상흔을 안은 바다 - 전남, 여수, 순천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48차 정기기행을 25~26일 간 다녀오다. (다른 관련기사 보심)

26

- 경기도 성남 소재 청계산에 위치한 탕고미군기지 앞에서 시민과 단체회원 80여명이 범민련 남측본부와 평통사모인 가운데 '북침공격연습 중단 촉구 평화의 인간띠잇기,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의 발언이 있었고 앞서 진행된 '시민등반대회'로 이날 참가자들은 가족단위가 주를 이뤘으며, '북침 전쟁연습 그만, 평화의 춤을 추자'라는 주제의 걸개그림 그리기, 집단운동 등으로 분위기를 돋우다. 이들은 등반대회를 통해 탕고기지과 인근 미8군사격장을 돌아보다. 7시 20분경 촛불집회가 마무리되면서 탕고기지 정문 일대에서 평화의 인간띠잇기 행사가 진행된다. 촛불을 든 참가자들은 탕고기지 정문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병력 앞에서 긴 띠를 형성해 소원과 종이피켓을 밧줄에 매달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1961년 박정희군사정권에 의해 사법살인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과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실근씨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다.

- 용산 국방부 앞에서 범남본 실천연대 평통사 등 공동으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범남본 이

경원 사무처장 등 결의 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기지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회견문에서는 이른바 NLL은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이 아니고 국제해양법에도 위배되며 남북사이의 우발적 충돌 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북사이의 합리적인 해상경계선을 새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다.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학생 6명이 <을지포커스렌즈>연습중단 주한미군 등을 외치고 기습시위를 벌이다. 이들은 성조기를 찢고 대북전쟁훈련, 한미군사훈련중단 '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위하다가 이들 중 3명이 종로 경찰서에 연행되다.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회장이 이들을 면회 격려하고 경찰에 대해 즉각석방을 촉구하다.

28

- 창미디어 회의실에서 양심수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 준비모임을 갖다. 작품수집 표구일정 전시회홍보관계, 개막행사준비 등 논의하다. 김호현 모성용 여혜정 김혜순 송지영 소수영 임미영 권오현 함께 하다.

- 성남소재 청계산에 있는 '탕고' 기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평통사 주최로 71차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김종일 사무처장 김판태 회원사업 팀장 등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규탄발언 등이 있었고 결의문에서는 일체의 한미합동 대북공세 전쟁연습과 북을 점령목표로 한 작전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 언론매체들은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북침전쟁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관련기사보심>

29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한미 FTA저지 범국민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집시법위반혐의 등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은 검찰측 증인으로 진압경찰관이었던 문아무개씨가

나와 '자신이 얻어맞은 것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위자가 몸부림치는 것에 맞은 것'이라고 했으며 고의적으로 시위자가 때리거나 찬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하다.

또한 '시위대가 쇠파이프나 화염병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특별히 무장을 하지 않았다'며 '시위자들이 폭력시위를 준비했거나 유도, 지시하는 것으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한미 FTA비준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음.

- 조선남자 재일동포 리정애씨가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회원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다. 민족21)에 게재된 만화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 체류기'의 실제 주인공인 재일교포 3세 리정애씨는 고등학교까지는 일본인 학교를 다녔고 조선대학교를 나왔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 때 알게된 통일행사에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참가하고 있다.

지난 8월 행사에서 강담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며 조부모님의 고향을 방문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짓기도 했던 그녀가 그 날의 인연으로 강선생님의 초청을 받아 만남의 집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다.

이날 만남에서는 리정애님의 일본생활 조국방문 조국사랑 등 여러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눈물을 흘려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눈물지었고 이에 화답하여 선생님들께서는 통일조국에 대한 열정을 털어놓아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과와 저녁 함께 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진다. 이순영 변숙현 양희철 강담 박정덕 김영식 문상봉 권오현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성용 신현익 나정옥 안병길 김래곤 김연옥 송지영 임미영 함께 하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여의도 당사를 찾아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선거(대선)는 '친북좌파'와 '보수우익'의 대결'이라며 '여권은 민족공조라는 측면에서 남북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전통우호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또한 '정상회담이 핵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핵을 용인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안된다.'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다.

30-----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77호 목요집회를 열다. 여는 말 임기란 전 상임의장 서경순전상임의장 강순정선생 석방촉구발언 이주노동자 노조 사무장의 노동자 탄압과 이주노동자 차별정책 등 비판연설 등이 있었음.

- 김호현 부회장 민족미술인협의회에서 서화전에 출품할 미술품 가져오다.

31-----

-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1천 선봉대 해단식과 추석집중 투쟁선포식'을 하다. 또한 이 보도에 앞서 같은 자리에서 전국민간서비스 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1500여명은 집회를 열고 공동결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민간위탁 중단 인력충원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다.

-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뉴코아, 이랜드조합원 등 노동자 1000여명은 매장입구 곳곳에서 봉쇄투쟁을 벌이다. 노동자들은 '박성수를 구속하고 이랜드문제 해결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사태해결을 촉구하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강경 폭력진압에 나서 시위노동자 들을 강제연행하다. 이날 늦게까지 건설노조원 2명 전국민주연합노조원 6명 이랜드 일반노조원 8명이 연행되다. 노동자들은 홈에버 월드컵점으로 통하는 입구를 점거하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계속하다.